

November 11, 2018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양	예수 우리 왕이여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358장(통400, 주의 진리 위해)
Prayer 기 도	라태한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고린도전서10:1-14
Choir 성가대찬양	520장(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Sermon 말 씬	김원기 목사

“ 시험에 대하여 ”

◎Prayer 기 도	다같이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00

☐ 성가대연습 / 3분복음 외우기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삼하6:1-11 ☐ 제목: 오벧에돔의 집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 구역장 : 라계용 권사	인도 : 라태한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정식장로	인도 : 조홍진장로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최은자권사	인도 : 최 활집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사모	인도 :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8년 표어 “예수님처럼-예수님처럼”(요15:10)
- 이달에 입을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 2018년 11월
 11/11 구역예배, 카운셀
 11/18 추수감사예배(이웃초청주일), 연합예배
 11/25 남녀선교회월례회, 교역자회의, 생일축하.
- 다음주는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2019년도 남녀선교회 조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 :
 - 김창남 권사(LA 작은 딸집)
 - 한경환 권사(팜데일 큰 딸집)
 - 진팀 (진원식집사님 아들) 다리수술후 회복중입니다.
 - 황창원, 황동균 집사님가정(모국방문중)
- 새벽기도회에 힘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에 참석하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일2부 대표기도순서
 11/18성기현장로 11/25조홍진장로 12/2 라태한장로
 # 토요일 새벽기도순서
 11/17라계용권사 11/24성승륙권사 12/1김봉재권사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성기현장로
☐ 안내 : 1부- 조홍진장로	•2부- 조혜성집사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전 도 사 : 황창원
☐ 사무장로 : 김정식 라태한 성기현 조홍진	☐ 협동장로 : 이화정
☐ 음향간사 : 장정관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교육부헌금 : \$
주일헌금 : \$	구역헌금 : \$
감사헌금 : \$	선교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고린도전서9:16-23 사랑의 동산교회 35년

35년동안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바울이 주는 교훈이 앞으로의 35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

1.섬김을 기회로 여기는 교회(16)

16,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할 일 임이라 했습니다.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 집니다. 어쩔수 없이 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그가 한 모든 사역에 대한 자세와는 너무나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기꺼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 말이 잘 전개가 됩니다. 이 기꺼이는 그가 사역에 있어서 보수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자비량으로 감당하면서 사역한 점을 보면 기꺼이가 맞습니다.

2.복음의 만족이 있는 교회(17-18)

17,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그러나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처럼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날마다 '큰 상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값없이 제공하는 일의 만족감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대한 참된 보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었을 때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임금이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바울에게 있어서 본인이 갖는 최대의 만족감이었습니다. 곧 내적인 만족함이 있어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대우받으면서도 충분히 쉽게 사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해선 자신에게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쓰지 않을때 감사가 있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3.소통을 즐기는 교회(20-22)

20,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이중 인격자가 되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누구와도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통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